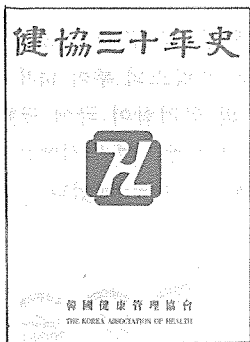


30년 발자취 담은 “건협 30년사” 발간

30년간의 사진 화보·역사와 國·英·漢文판으로 엮어



한국건강관리협회 30년간의 역사를 실은 “건협 30년사”가 지난 9월에 출간되었다.

“건협 30년사”는 1964년 한국기생충 박멸협회로 시작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생충 퇴치 및 건강검사, 보건교육, 조

사연구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했던 사업들, 사업 수행 과정과 그 뒷얘기들, 본·지부의 연혁과 역사, 회고담 등을 비롯해 그간의 활동상을 담은 사진화보로 꾸며져 있다.

총 400면으로 된 이 책자는 특히 협회의 역사를 국제적으로 알린다는 취지에 모든 내용을 한문으로 게재하는 한편 화보의 내용과 주요 역사 및 사업내용 등을 영문으로도 요약·게재했다.

“건협 30년사”는 국내외 유관기관 및 인사들에게 배부되어 건협의 역사를 비롯해 우리 나라 기생충 퇴치 및 건강관리 등 국민 보건 역사의 중요한 조망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헌혈하는 부산시민 위한 무료검사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광역시지부가 KBS와 대한적십자사가 마련한 방송의 날 기념 특별 생방송 “헌혈! 곧 사랑” 행사에 참가해 헌혈을 하는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무료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9월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역광장에서 있었던 이번 행사

건협 부산지부, KBS 헌혈 행사에 동참

에서 건협은 헌혈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을 위해 X-레이검진, 간기능, 소변 검사 등 7종목에 대한 무료검사를 실시했다.

시민들의 헌혈 의식 고양과 건강 의식 향상을 위해 실시된 이번 무료검진에서는 640여명의 부산시민이 검사의 혜택을 받았다.

건협 광주·전남지부, 직장인을 위한 조기검진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가 바쁜 직장인을 위한 조기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고객 만족 의료서비스를 도모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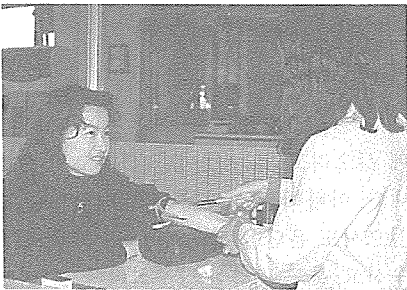
오는 10월부터, 매주 목요일에는 아침 7시부터 검진을 실시해 출근을 해야 하는

오는 10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실시

직장인의 편의를 도모키로 한 것이다.

이 직장인을 위한 조기검진에서는 사전에 예약을 받아 하루 10명 이내의 종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들 조기검진자에 대해서는 검사 후에 간식도 무료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천시민 위한 무료검사 실시



건협 인천광역시지부, 오는 10월 31일까지

천시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32)884-7131~2, 033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인천시민을 위한 무료 검사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실시될 예정인 이 무료 검사의 종목은 B형간염과 혈액형 검사 등이며 이와 함께 무료 건강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무료 검진사업을 통해 지난 9월 한달동안 적지 않은 인천시민이 검사를 받았다.

검진을 원하는 인천시민들은 건협 인

학생·교직원

건강증진 위한 의견 교환

건협 서울지부, 교육청 보건관계자 간담회 개최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지부는 지난 8월 30일 교육청 보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각 구 교육청 보건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던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생·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사 및 보건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